

## 사무엘상 4장 12-18절 말씀

- 12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 
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 
실로에 이르니라
- 13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 
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
-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매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
- 14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 
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 
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
- 15 그 때에 엘리의 나이가 구십팔 세라  
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
- 16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 
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 
엘리가 이르되  
내 아들이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
- 17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 
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 
백성 중에는 큰 살륙이 있었고  
당신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 
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
- 18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 
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 
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 
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사십 년이었더라